

한국기술교육대 약술형논술

언어논술

목차

2026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사회계열)	3
문항 1~5	3
문항 6~11	7
2025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사회계열)	12
문항 1~5	12
문항 6~11	16
2024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사회계열)	20
문항 1~5	20
문항 6~11	24
2027학년도 모의논술	29
문항 1~5	29
문항 6~11	33
2026학년도 모의논술	37
문항 1~5	37
문항 6~11	41
2025학년도 모의논술	46
문항 1~5	46
문항 6~11	50

2026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사회계열)

문항 1~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제시문

- (가) 시장경제에서 노동은 자본, 토지와 함께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한다. 노동자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능력이거나 기술 등과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며 이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노동자에게 노동은 임금 소득의 원천이자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듯 노동은 시장경제의 핵심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양질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나) 예전 전통의 부르주아지(자본가)는 성(城)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공동체의 생존과 재생산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노동에 대한 꾸준한 헌신, 생산물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했고, 노동자들의 수공업적 기술과 자본가들의 기업가적·금융적 기술의 협력적 산물인 물질적 생산품을 만들어 축적하고 확산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현대 경제에서는 자본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특정 지역이나 생산 기반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가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고정된 생산시설보다는 단기적이고 유연한 금융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가의 활동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글로벌하고 비물질적인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예전 전통의 자본가들이 중요시하던 지역 공동체와의 정서적 연대감은 약화되고, ㉡노동자 역시 외부 목적에 따라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분석하면서, 노동이 정작 노동자에게는 본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노동의 ()’을/를 주장했다. 우리가 일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알고 있다고 해도, 노동은 언제나 외부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강제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노동은 일정 부분 의무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이 내적 만족이 아니라 노동 외적 욕구(㉢쇼핑, 여행 등)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어떠한 제약도 없다면, 노동은 기피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기이한 특성이 드러난다. 외적 노동, 즉 인간이 소외되는 노동은 인간의 자기희생이자 고행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창조성과 같은 본래적 능력과 통제력을 잃는다. 그 결과 인간은 그의 동물적 기능들인 먹고 마시고 생식하는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동물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은 동물적인 것이 된다.” 이는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본래적 능력을 억압한다는 마르크스의 비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라) 오늘날 성과사회에서 개인은 더 이상 의무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타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경영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타자로부터의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타자의 인정이라는 보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끝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강제에 노출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강제가 결코 마무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현대의 노동은 시작과 끝이 있는 완결의 형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 지속적 업데이트, 성과지표의 끊임없는 상향 조정 등은 노동을 항상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며, 개인에게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감각을 빼앗는다. 완결된 형식의 부재는 무엇보다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경제적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없는 성과를 스스로에게 부과해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기에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의 전쟁으로 인해 탈진해버리고 만다.

(마)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입을 수행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아이돌봄서비스’ 확충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임금·근로시간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성, 불완전경쟁, 구조적 약자 보호 등의 문제를 정부 개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1) (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 2음절로 쓰시오. (5점)
- (2) (나)의 ㉠이 ㉡과 같은 인식을 갖게 된 이유를 (나)의 전통적 자본 세계의 입장에서 찾아 쓰시오. (3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 (3) <보기>와 (가), (나)를 참고하여,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등장한 노동의 문제를 추론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권리를 2가지만 제시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전국 9곳의 직영 센터를 순차 폐지하고, B지역 공장 내 유희 부지와 일부 비핵심 설비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당장 생산 라인의 운영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중장기적 구조조정의 신호로 보고 있다. 현재 A사의 1차 협력업체만 276곳에 이르며, 2·3차 협력사를 포함하면 약 3,000개사, 관련 고용 인원은 약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다)와 (라)를 참고하여, 오늘날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 (5) <보기>와 (나), (라)를 참고하여 AI 확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2가지만 추론하고, (마)를 참고하여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함께 제시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미국 한 IT기업 CEO는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입증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신입 개발자가 맡던 초급 업무는 자동화되고 있으며, 특정 업계에서는 AI를 도입한 기업의 신입 채용이 미도입 기업보다 약 4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오늘날의 테크 기업들은 잠재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결과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IT 스타트업 대표는 “단순 코딩 인력보다 AI를 활용해 당장에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개발자가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는 인력은 도태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예시 답안

(1)

소외

(2)

노동에 대한 꾸준한 헌신과 생산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짐 (또는 공동체의 생존과 재생산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라짐, 노동자들의 수공업적 기술과 자본가들의 금융적 기술의 협력이 약해짐, 지역 공동체와의 정서적 연대감이 약화됨)

(3)

(가)에서와 같이 노동은 경제적으로나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보기>와 (나)에서 노동자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의 노동삼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에 더욱 주목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다가갈 수 있다.

(4)

(다)의 외적 목적에 의해 강제되는 노동은 개인이 일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얻기 어렵게 만들며, (라)의 자기강제 역시 스스로를 높은 성과 추구로 몰아붙여 개인의 탈진을 조장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여가 확보를 어렵게 해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5)

AI 확산으로 신규 노동자의 역할이 AI로 대체되는 가운데, 눈앞의 당장 실현 가능한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태도에 노동자는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나)의 금융 중심 경제 환경에서 노동자는 노동의 외부 목적에 빠르게 부합하지 않으면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이나 직업훈련과 재교육 제도를 확대해 노동자가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라)와 같이 노동자가 타자의 인정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을 몰아붙여 탈진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부는 심층 직업상담이나 퇴근 후 SNS 금지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탈진을 예방하고 내적 안정을 돕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다)에서 마르크스가 설명한 노동의 핵심 개념인 ‘노동의 소외’가 소개되어 있음 - 따라서 ‘소외’가 정답임(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2)	(나)의 서술을 바탕으로, 금융화된 경제환경에서 등장한 새로운 자본가가 어떻게 외부 목적에 따라 노동자를 쉽게 대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전통적 자본 세계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따라서 전통적 자본 세계의 특징을 토대로 한 ‘노동에 대한 헌신의 부재’, ‘생산물에 대한 애착 저하’, ‘물질적 생산품의 축적과 확산에 가치를 두지 않음’, ‘공동체의 생존과 재생산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라짐’, ‘노동자의 수공업적 기술과 자본가의 금융적 기술의 협력이 약해짐’, ‘지역 공동체와의 정서적 연대감이 약화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답(5점) - ‘단기 투자’, ‘빠른 자본의 이동속도’, ‘유연한 금융 투자’,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음’, ‘글로벌’, ‘비물질적 형태로 전환’과 같은 금융 중심의 현대 경제의 특성이 포함될 경우엔 감점함(2점) - 기타 다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0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자 이하) 감점함(1점)	5점
(3)	(가)는 시장경제와 개인에게 있어 노동은 핵심적인 요소임을 언급함 (나)에서는 변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을 설명함 이어서 <보기>에서는 (나)의 배경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시장경제와 개인에게 노동은 중요하지만 변화된 경제 구조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추론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나)와 <보기>에서 변화된 경제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점(노동자 대체 가능성 증가)과 (가)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의 중요성이 모두 제시되어야 함(5점) -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2가지’ 제시되어야 함(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5점) - (가), (나), <보기>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경우 감점함(각 3점)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4)	(다)에서는 외적 강제와 외적 욕구로 인한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함 (라)의 성과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자기강제와 미완결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강제함 이러한 외적으로 강제된 노동과 끝없는 자기성과 압박이 현실의 노동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다)에 나타난 노동의 외적 강제 또는 노동 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동이 ‘노동의 소외’를 야기한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음 - (라)에 제시된 성과사회의 특성인 자기강제 또는 완결성의 부재를 도출할 수 있음 - (다), (라)의 각각의 요소들을 통해 노동자의 워라밸이 나빠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 (다), (라) 중 설명이 빠진 경우 감점함(각 3점) - 인과적 설명 없이 단순 열거한 경우 감점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10점
(5)	<보기>는 AI의 등장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현상을 설명함 노동자는 AI라는 외적 변화를 감지하고 (나)에서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부합하여 대체되지 않을 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또한 (라)의 언급처럼 개인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을 몰아붙여 스스로를 탈진에 이르게 함 이에 정부는 (마)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자의 불안과 소진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종합하면, <보기>에서 언급한 AI시대의 변화를 연관지어 (나)의 노동자 대체 가능성의 증가와 (라)의 자기강제와 미완결성으로 인한 노동자 불안이라는 내용을 도출하고, (마)를 참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을 제시해야 함 - <보기>를 통해 AI가 야기하는 신규 채용 감소 현상과 스스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서술해야 함 - (나)의 금융 중심 경제 환경에서 노동자가 외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 (라)의 자기강제와 미완결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불안이 탈진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 이러한 맥락 안에서 (마)에서 언급한 다양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함 - 1) <보기> 상황에 대한 서술, 2) (나)와 (라)의 관점에 대한 언급, 3) (마)를 참고한 (나)와 (라)의 문제해결을 위한 각각의 정책적 대안 제시(㉠ (나)-고용보험, 직업훈련, 재교육 강화 등 / (라)-심층 직업상담 또는 심리상담지원, 퇴근 후 SNS 금지법 등)가 모두 있어야 함(각 항목별로 결여 시 5점씩 감점) - 인과적 설명 없이 단순 열거한 경우 감점함(5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점

문항 6~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제시문

- (가) 지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과거사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인구가 점차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알제리, 베트남 등의 옛 식민지 출신들이 프랑스 본토로 많이 이주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과거에는 인종주의가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 인종주의는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과거 식민지 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식민지 지배 과거사가 다른 형태로 프랑스 내에서 다시 펼쳐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프랑스인들은, 식민지 지배 기간 프랑스인들이 식민지의 ‘미개인들’과 ‘원주민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똑같이 구 식민지 원주민 출신의 프랑스 시민들을 바라본다. 그들이 백인과 달리 인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 기간의 편견은 오늘날의 인종주의로 연결되며, 인종주의는 하나의 국가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인종·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서로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와 충돌한다.
- (나) 문화는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반해 ㉡문화 상대주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는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회의 문화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자기 문화냐 다른 문화냐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정해진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한지 혹은 더 열등한지를 가릴 수 없다고 본다.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당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현상까지도 인정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리들로서 ㉣보편 윤리의 입장에서 문화들을 성찰해야 한다.
- (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멜팅 팟(melting pot) 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모든 시민은 인종, 출신지, 종교, 성에 관계없이 공통의 문화를 가지며,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인권 등의 신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반면 ㉥샐러드 볼(salad bowl) 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소수 민족 혹은 인종의 역사, 문화 전통, 제도 등도 함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 (라)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는 1988년 9월 출판되었다. 루슈디는 이슬람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종교적인 엄숙함을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고,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 『악마의 시』는 이슬람교의 예언자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하면서 그의 성생활을 다룬 불경한 책이라고 알려졌다. 영국 내 무슬림들은 처음에는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거나, 17세기 이래 영국에 존재해온 신성모독죄*의 범위를 넓혀서 루슈디를 이슬람교 모독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자 한 무슬림 단체는 1989년 1월 14일 이 책을 불태우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전국적인 주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영국의 인권운동 단체와 좌파 그룹들도 무슬림 세력과의 연대를 끊었다.
- * 신성모독죄: 이단 및 이교도를 처단하는 법
- (마) () (이)란 배타적인 정치공동체 특히 근대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며,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내린다. ()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회적 협력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성원권(membership)이 포함된다. 둘째, 이 지위에는 정치적 협의체를 통해 제공되는 집단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이 수반된다. 셋째, ()에는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집단적 가치를 증진하고 유지할 동등한 의무가 수반된다. 오늘날 국제 이주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의 기준

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시민적 문화, 즉 현존하는 규율들의 정당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나 ㉔정치적 토론을 위한 공동의 언어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실제로 그러한 가치들이 시민들의 공통된 정체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더욱 답하기 어려워졌다.

(6) (마)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3음절로 쓰시오. (3점)

(7)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3점)

<보기>

일제강점기 ‘창씨개명(創氏改名)’이란 씨를 새로 만드는 것(창씨)과 명을 바꾸는 것(개명)을 합한 말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종래 한국의 관습에 없던 씨(일본 ‘이에[家]’의 칭호)를 새로 만드는 것, 즉 창씨이다. 문종 등 조선적 가족제도를 약화시키고 ‘이에’ 제도를 도입해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심고자 한 것이다. 창씨는 일본인 풍의 씨를 만들도록 유도했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 호주의 성(姓)을 씨로 하였다. 창씨는 의무였지만, 개명은 허가 방식으로 방임하는 태도를 취했으므로 10% 정도만이 일본식 이름을 선택했다. 동화를 강제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인과의 차이를 재생산하는 ()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8) (마)의 ㉔는 (다)의 ㉑, ㉒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9) (나)의 ㉔의 관점에서 (라)에 나타난 영국 내 무슬림들의 행동에 대해 1세대 인권의 차원에서 2가지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10) <보기> 속 오킨의 주장이 (나)의 ㉔~㉕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쓰고, 오킨의 주장을 1가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정치철학자 수잔 몰러 오킨(Susan Moller Okin)은 “다문화주의는 여성에게 나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오킨은 소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젠더 평등의 추구하고 충돌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서구 자유주의가 젠더 평등적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서구 자유주의적 법질서가 소수 문화에 존재하는 명백한 여성 혐오적이고 성차별적 실천들(㉑ 아동 매매혼이나 일부다처제 등)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강간이나 아내 살인, 영아 살해 같은 어떤 문화적 옹호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관용은 문명화된 실천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야만적 행위는 관용의 울타리 바깥에 놓인다. 하지만 오킨의 주장은 계몽적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1) <보기>는 A국에 있는 B당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기>의 ‘민족문화다원주의(ethnopluralism)’의 입장이 (나)의 ㉔~㉕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서술하시오. 또한, (다)의 ㉑의 입장에서 ‘민족문화다원주의’를 비판하고, 그 입장에서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1가지만 제시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B당은 처음부터 반이민 정서에 지지기반을 두었다. 1972년 창당된 B당의 강령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A국의 시민권은 혈통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며, A국으로의 이민은 중단되어야 하고, A국 거주 외국인들은 점차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 정당은 늘어나는 노동자와 실업자 지지층을 집중 겨냥해 국가개입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구호를 내세웠다. 즉, ‘A국인(人) 먼저!’라는 ‘민족적 선호’ 정책이다.

이들은 ‘민족문화다원주의(ethnopluralism)’, 즉 한 사회의 다양한 민족문화들이 각각의 고유하고 순수한 형태를 독자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민족문화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이민을 제한하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경쟁자이자, A국인들을 자국에서 문화적 소수집단으로 만드는 이민자들을 막고 복지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 예시 답안

(6)

시민권

(7)

인종주의

(8)

(마)의 ㉠은 다문화 정책 중 ㉠멜팅 팟 정책이다. ㉠는 공동의 언어가 있어야 공동체 내의 정치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려는 입장이다.

(9)

(나)의 ㉡는 다양한 문화 속에도 일반적 도덕 원리는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영국 내 무슬림들의 『악마의 시』에 대한 반응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판받을 수 있다.

(10)

<보기> 속 오킨의 주장은 ㉡보편 윤리의 입장에 가깝다.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의 자발적 히잡 착용을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오킨의 주장은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 윤리라는 명분으로 소수 문화에 강요한다는 문제가 있다.

(11)

<보기>의 ‘민족문화다원주의’의 입장은 (나)의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 가깝다. 그 이유는 ‘민족문화다원주의’의 입장이 각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A국에서 주류인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므로 다른 문화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민자들이 들어올 경우 A국의 우수한 민족 문화는 오염되므로, 자국으로의 이민을 중단시키고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문화 정책의 하나인 (다)의 ㉠‘멜팅 팟’ 정책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공통된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지만, 자기 공동체 내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거나 이민을 금지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 이러한 멜팅 팟 정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보면, 이민자들에 대해 A국의 공용어인 A국어 교육 등 A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국민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A국의 공용어인 A국어 교육’은 ‘A국의 민족사 교육’, ‘A국의 핵심 문화 교육’ 등으로도 대체 가능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마)의 내용은 리처드 벨러미의 『시민권』으로 근대 사회에서 성원권, 권리, 의무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시민권과 다문화 사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임 - 정답은 ‘시민권’임 - 본문을 통해 3음절이라든가 ‘시민’이란 표현 등을 통해 답안의 명확한 형식을 제시하고 암시하였기 때문에 ‘참정권’, ‘국적’ 등은 오답으로 처리함(0점)	3점
(7)	(가)는 질 망스롱의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에 등장하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유산과 인종주의에 대한 내용임.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제국주의 시대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억압과 수탈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연결된다는 것임 <보기>의 사례는 미즈노 나오키의 『창씨개명』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적 동화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정책(인종주의)이 내포되어 있었던 점을 다룸 - 정답은 ‘인종주의’임 - 문제에서 “(가)에서 찾아”로 명시했기 때문에, ‘인종주의’ 이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0점)	3점
(8)	(마)의 ㉠는 ‘공동의 언어’이므로 정책상으로 보면 ㉠‘멜팅 팟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다)에서 제시된 멜팅 팟 정책과 샬러드 볼 정책의 차이는 특정한 공동체 혹은 국가 내에	7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서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로 융합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경우와 다양한 문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우로 나타남 - ㉠이라고 썼을 경우 오답 처리함(0점) - 단순히 ㉠과 ㉡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언급하는 경우 감점함(4점) - 이유의 경우 정치적 토론을 위한 공동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공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9)	(나)의 ㉠의 입장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과 달리,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리로서 보편 윤리가 있다는 입장임 - (나)의 ㉠의 입장에서 볼 때 영국 내 이슬람 교도들의 『악마의 시』에 대한 반응은, 보편 윤리에 저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1세대 인권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의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함 - 위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 만점을 부여함 - (나)의 ㉠이 어떤 입장인지 간단히 서술하지 않으면 감점함(2점) -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함. 단, 2가지 자유는 학문, 출판, 사상, 양심의 자유 등으로 대체될 수 있어 이들 중 2가지를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각 2점, 총 4점) - ‘자유권’은 교과서에서 1세대 인권과 동의어이므로 오답으로 처리함(0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7점
(10)	<보기> 속 오킨의 입장은 다문화주의가 젠더 평등과 충돌한다고 보며, 서구 자유주의적 법질서-정치적 조류가 여성 평등을 지향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이와 같은 입장은 ㉠보편 윤리의 입장에 입각하며 문화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소수 문화나 타 문화권이 여성에 대해 불관용적이라는 서구만의 기준으로 특정한 관습을 불허하거나(㉡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의 자발적 히잡 착용 불허), 혹은 서구 문화만 여성들에게 인권친화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비판(㉢ 서구의 ‘성 상품화의 일상화’는 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심지어는 서구의 다른 문화권에 대한 선전포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일부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지지)을 받을 수 있음. 이 점을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함 - 오킨의 입장은 서구 자유주의를 표준으로 놓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만 정답임(3점) - <보기> 속 오킨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 사례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감점함. 단순히 <보기> 본문에서 언급한 ‘계몽적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등의 개념만을 언급한 경우도 감점함(5점), - 썼지만 논리가 부족하거나 추상적일 경우 부분 감점함(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2점)	10점
(11)	<보기>에서 B당의 ‘민족문화다원주의’ 입장은 (나)의 ㉠자문화 중심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다)의 ㉡멜팅 팻 정책은 ㉠의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과 맞아떨어지지 않음. 따라서 ㉡의 입장에서 ㉠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나)의 입장 중 ㉢문화 상대주의, ㉣보편 윤리는 완전한 오답이며, ㉤문화 상대주의로 오인할 수 있으나 ‘민족문화다원주의’가 실제로는 배타적 인종주의이므로 역시 오답임. 따라서 ㉠이 아닌 답안은 모두 감점함(5점) - 또한 왜 ‘민족문화다원주의’가 ㉠자문화 중심주의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지 않을 경우 부분 감점함(3점)	2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다)의 ㉠멜팅 팟 정책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민족문화다원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해야 함. 만일 멜팅 팟 정책에 대한 정의가 틀리면 부분 감점함(3점). ㉠이 이민 혹은 이민자의 유입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쓸 경우 부분 감점함(2점) - (다)의 ㉠에 따라 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즉, ㉠에 따르면, 이민자를 대상으로 공통의 언어나 민족의 공통된 역사를 가르치는 등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공통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 맥락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감점함(5점) - 이외에 개연성 있는 내용을 서술했을 경우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점수를 인정함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25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사회계열)

문항 1~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제시문

- (가) ㉠물질적 조건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간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삶의 여유를 갖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경제적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양질의 교육과 건강 관리가 가능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국가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처럼 경제적 안정을 넘어 지나친 경제적 풍족만을 추구하는 삶은 과도한 경쟁과 비인격화 등의 문제를 유발해 인간을 늘 행복으로 이끌지만은 않는다.
- (나)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도덕적 성찰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을 좇아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본인의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자명한 사실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고민해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 (다)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 없이 온전치 못한 발만 가지고 태어난 호주의 닉 부이치치나 학생들과의 해외 탐사 여행 중 차량전복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상목 서울대 교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육체적으로 건 강하지 못한 상태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이란 어떤 객관적 상태를 가리킨다기보다 마음의 상태, 혹은 태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조건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보다 행복한 마음이 우리가 가진 것을 축복받은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역설이 그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라) 낮은 수준의 물질적 번영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행복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즉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중요한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마사이(Masai) 목자들, 이누이트(Inughuit) 수렵·채집인들, 애미쉬(Amish) 공동체들 등은 주관적 복지연구 결과에서 고도의 긍정적 결과들을 갖는 사람들로 간주한다. 일례로, 부탄 사람들은 국민 소득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만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고, 공동체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 개인의 심리적 웰빙, 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 그리고 구성원의 건강 등에 포괄적, 균형적으로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풍요로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자’(positive outliers)의 사례들은 최고 수준의 행복을 최소한의 물질적 만족을 통해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 (마) 제러미 시브룩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은 ‘인위적이며 주관적인 결핍감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준 데에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현재 소유한 것에 만족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 원리에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들은 부자들이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직시하면서, 그들이 현재 가진 것은 무시되고 위축되고 왜소해져야 한다. 부자는 보편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다. 현대인이 물질에 집착하고 빈곤감을 느끼는 것은

㉔산업자본주의의 탓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남과의 비교와 소비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에 무방비로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1)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나)에서 찾아 2어절로 쓰시오. (5점)

<보기>

동남아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공학도들이 ‘남다른’ 재능 기부를 하였다. 인도네시아 반둥 및 찌위데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공대생 24명과 현지 대학생 29명 등 6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2주 동안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봉사 활동을 하였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에 적신 천을 활용한 채소 냉장 보존 시스템, 원숭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맹수 감지 알람 장치, 소여물 절단 장치 등 맞춤형 물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한 학생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행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는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 즉 ()이 행복으로 가는 더 현명한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2) 행복에 관한 <보기>의 입장을 참고하여 (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문구를 쓰시오. (3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보기>

새롭게 일어나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으로부터는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는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항상 주어지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민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둔감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 행복의 기도 中, 리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 -

(3) <보기>를 참고하여 (마)의 ㉔의 폐해가 무엇인지 추론하고, (나)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무한경쟁 속에서 무시와 과시의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을 벌이며, 특정 일에 편중되고 편애하면서 매진하고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물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실될 때까지 그 강도를 높여가며 다양한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4) (나), (다)를 참고하여 (가)의 ㉔의 한계를 비판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5) (마)를 활용하여 (라)의 ㉔의 이유를 설명하고, (라)와 <보기>를 참고하여 (마)의 ‘대중들’이 ㉔에서 벗어날 수 있는 1가지 방안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만, 현대화는 개성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중략) 내가 현대화된 A지역에서 관찰한 악순환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마도 개인의 불안정이 가족과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하는 데 기여하고, 이로 인해 또 개인의 자존심이 더욱 흔들린다는 것이다. 소비주의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물질적인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 예시 답안

(1)

도덕적 실천

(2)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3)

물질적 잣대를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여 인정받으려는 현대인의 태도는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언가에 매몰된 상태인 중독으로 이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물질적 욕망을 좇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자세와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으로 돌리고 이를 실천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4)

물질적 조건이 행복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나, 지나친 욕심은 되레 우리를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나), (다)를 통해 객관적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와 더 나아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루는 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포괄적이고 균형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에 돈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나친 비교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다. 부의 비교우위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로감, 욕망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산업자본주의의 대중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만이 아닌 다른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설명한 사례로 이태석 신부님을 들 수 있다.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통해 돈을 좇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의 삶을 통해 이웃들을 보살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듦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즐기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제시문 (나)는 행복의 요건 중 도덕적 성찰 및 실천에 대해 서술함 <보기>는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 즉, 실천을 통해 행복을 경험한 사례임 - 따라서,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2어절 단어는 ‘도덕적 실천’ 정답임 - 정답 이외의 다른 단어는 모두 오답 처리	5점
(2)	제시문 (다)는 행복이란 객관적 상태라기보다 개인의 마음가짐, 태도라는 관점을 설명함 <보기>는 주어진 상황보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함을 서술함 -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문구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다’임 - ‘객관적인 상황 자체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식 또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맥락이면 정답으로 인정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20자 이하) 감점함 (1점)	5점
(3)	제시문 (마)는 산업자본주의 내에서 지나친 비교와 소비의 부추김으로 인해 개인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메커니즘을 설명함 <보기>는 현대사회의 인간이 무한경쟁과 인정투쟁으로 인한 심리적 매몰을 겪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함 - (마)에서 언급한 산업자본주의의 덫으로 인해 ‘지나친 비교’, ‘소비 욕망’, ‘물질적 우위’를 가지려는 모습은 인간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무언가에 매몰된 상태인 중독이라는 폐해를 유발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제시문 (나)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돌아보고 또 이를 실천하는 삶이 산업자본주의의 뒷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산업자본주의의 폐해나 (나)를 활용한 해결방안(도덕적 성찰, 도덕적 실천) 중 하나만 있으면 감점함 (5점) - 해결방안이 (나)에서 언급한 도덕적 성찰 또는 실천의 맥락과 다를 경우, 감점함 (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 (2점)	
(4)	제시문 (가)는 ㉠ ‘물질적 조건’이 행복의 기본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지나친 물질의 추구는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술함 제시문 (나), (다)는 행복의 조건 중 물질적 조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공동체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함 - 행복한 삶을 위해 물질적 조건인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과욕은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객관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행복의 조건임과 동시에 외적인 조건인 물질에 의해 형성된 행복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음 - 답안에는 ① (나), (다)에서 언급한 행복한 마음가짐, 공동체의 행복 추구가 제시되고, ② (가)의 ㉠ ‘물질적 조건’의 한계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①, ② 중 한 가지만 작성할 시에 감점 (4점), (나), (다)를 통해 (가)의 ㉠의 한계를 도출하지 않으면 감점 (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 (2점)	10점
(5)	제시문 (라)의 ㉡ ‘이들은 풍요로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① <u>돈만을 일률적으로 좇으면서 지나친 비교와 소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포괄적, 균형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더 행복함</u> - <보기>는 현대화된 소비주의 사회가 개인의 불안을 유발하고, 이것이 공동체 결속의 약화와 개인의 자존심 하락을 야기함을 설명함 - 제시문 (마)의 대중들은 불만족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 ‘산업자본주의의 뒷’으로 인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 - 이러한 뒷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② <u>제시문 (라)와 <보기>에서 제시한 돈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개인의 불안을 유발하는 소비주의적인 세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u> - 또한 ③ <u>이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예. 이태석 신부, 선 부부 등)를 제시하거나 (나), (다), (라)와 연관된 개인적 사례를 함께 제시</u> - 답안에는 ①, ②, ③ 모두 작성되어야 하며, 그중 한 가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점 (각 5점) - (라)와 <보기>의 맥락과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경우 감점 (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 (3점)	20점

문항 6~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제시문

- (가) 진화생물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은 생활사 이론(life history theory)을 사용하여 인구 밀도와 출산율 간의 관계가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출산은 ‘성장-출산-양육’이라는 생애 단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주어진 환경에 맞춰 어떠한 배분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생긴다. 가령,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설부른 출산은 비효율적 의사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자손이 번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출산 대신 자신의 성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전략이다.
- (나) 생명체로서 인간에게도 생존과 재생산에 대한 생태학적 고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월등한 능력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밀도는 그 밀도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와 연결된다. 똑같은 물리적 밀도의 수준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리 높지 않은 밀도로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밀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밀도는 심리적인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인 밀도는 물리적인 밀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제도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문화가 매우 동질적이고 제도나 규범이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리적인 밀도 상승도 구성원들에게 매우 큰 심리적 밀도의 상승으로 작용하는 국가이다.
- (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서유럽 복지국가가 선택한 길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족관계로의 변화였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후 임신·출산·돌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써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성평등한 노동시장 및 가족관계로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제가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회적 위험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된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여성 고용률 증가에 따라 하락하던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복지국가로서 성숙을 논하기에는 아직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며, 노동시장이나 돌봄의 성평등 측면에 있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 (라) 여성의 취업 생애주기를 그래프화하면 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 관계가 잘 나타난다. 여성 고용률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는 시기에 올라가고,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시기에 떨어진다. 아이가 성장해서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하기 시작하면 여성 고용률은 다시 올라갔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즉, 여성의 취업 생애주기는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자형 곡선을 그린다. 최근에는 한국의 ()자형 곡선의 폭이 완화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렇다면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이 완화되면서 경력 단절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감안하면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경력 단절이 될 이유가 없는 비혼 여성, 출산 의도가 없는 기혼 여성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마) 공간 불평등이란 지역 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어 크게 성장했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낙후되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국토 전체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는 40% 이상,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86.9%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20대 청년은 약 60만 명이며, 그 이유는

주로 ‘취업’과 ‘학업’이었다. 또한 문화 및 의료서비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진 것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6) (라)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알파벳을 쓰시오. (3점)

(7)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쓰시오. (3점)

<보기>

생활사 이론(life history theory)에 따르면 인구 밀도(물리적 밀도), 그리고 ()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출산율을 바라보는 (가)와 (다)의 관점 차이를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4점)

(9) (가), (나), (마)를 참고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한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와 관련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추론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8점)

(10) (가),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두 국가 간 출산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2점)

<보기1>

니제르의 인구 문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이에요. 방 한 칸짜리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에서 전기나 수도물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가게나 학교, 병원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예전부터 높았던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보기2>

A국

- 인구 밀도: 815명/km²
- 영아 사망률: 10만 명당 10명
- 수인성(水因性)전염병 사망률: 10만 명당 10명
- 살인율: 10만 명당 0.5명
- 합계 출산율: 0.8명

B국

- 인구 밀도: 1,065명/km²
- 영아 사망률: 10만 명당 300명
- 수인성(水因性)전염병 사망률: 10만 명당 400명
- 살인율: 10만 명당 2.6명
- 합계 출산율: 2.9명

단, A국과 B국의 인구 밀도는 모두 ‘매우 높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11) (다), (라)를 참고하여 현재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가)~(마)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 예시 답안

(6)

M (또는 m, 엠)

(7)

심리적(인) 밀도

(8)

(가)는 진화생물학·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저출산을 개인의 생존과 재생산 사이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보는 반면, (다)는 출산율의 변화를 사회적 돌봄 체계,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족관계 등 거시적·정책적·문화적인 측면과 연결하고 있다.

(9)

수도권으로 이동한 한국의 청년들은 출산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수도권의 물리적 밀도가 높아지고,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성공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에 심리적 밀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0)

높은 인구 밀도와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기초적인 서비스와 기반 시설의 부재, 높은 사망률과 살인율 등과 같이 환경적 취약성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의 합계 출산율 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경적 취약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11)

(다), (라)에 따르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추구한 서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회적 돌봄 체계, 성평등한 노동시장 및 가족 내 성평등한 문화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문화, 의료, 취업과 학업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 격차를 줄여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예를 들어 학벌을 중시하는 등의 서열화, 획일적 가치관 및 관련 제도들을 바꾸어 심리적 밀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및 여성에게 지워진 출산,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및 문화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라)의 여성 고용률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을 하는 시기에 고용률이 상승한 후, 결혼·임신·출산·양육과 함께 고용률이 하락하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고용률이 상승한 후, 나이듦과 함께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M(또는 m, 엠)’이 정답 - 괄호 뒤에 ‘자형’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답안에 자형, 형 등이 반복되는 경우 오답 처리함 - 기타 알파벳을 제시할 경우 오답 처리함	3점
(7)	(가), (나)는 생활사 이론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밀도 및 심리적인 밀도가 ‘출산’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전략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심리적(인) 밀도’가 정답임 - ‘동질적인 문화’는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심리적인 밀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오답 처리함 - 위 제시한 답안 이외의 답을 제시한 경우는 정답과 아주 유사한 답안일 경우만 정답 처리함 - 괄호를 채웠을 때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오답 처리함	3점
(8)	(가)는 생물학·심리학을 토대로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저출산을 이해하고 있고, (다)는 사회적 돌봄 체계,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족 관계의 정착을 출산율과 연결시키는 등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와 같은 (가), (다)의 관점을 모두 서술해야 함 - 둘 중 한 가지 관점만 정답일 경우 감점함 (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 (1점)	4점
(9)	(가), (나), (마)를 통해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물리적인 밀도가 상승하게 되고, 한국의 경우 문화가 동질적이고 제도나 규범이 그 문화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을 두고 경쟁할 여지가 높아, 물리적인 밀도 상승이 심리적인 밀도 상승으로	8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연결됨.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출산과 자신의 성장이라는 선택 중 전략적으로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즉, 수도권으로 이동 → 물리적 밀도 상승 → 심리적 밀도 상승 →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관계임 ①출산 대신 자신의 성장 또는 생존에 자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 ②물리적 밀도와 연관된 서술 ③심리적 밀도와 연관된 서술 - 위 ①, ②, ③ 모든 부분이 답안에 제시될 경우 정답 인정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감점함(①번 2점, ②번 2점, ③번 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 (1점)	
(10)	(가), <보기1>을 통해 ①인구 밀도와 출산율은 기본적으로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②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서 ‘특정한 조건’이란 영아 사망률, 수인성 전염병 사망률, 살인율, 전기나 수도, 가게, 학교, 병원 등 기초적인 서비스와 기반 시설의 부재,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과 같이 환경적 취약성을 의미 - (가)에 제시된 인구 밀도와 출산율 사이 부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 필요 - 환경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약화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는 언급 필요 - ③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A국과 B국이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산율의 차이를 보인다’는 언급 필요 - 위의 모든 부분이 답안에 제시될 경우 정답 인정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감점함(①번 4점, ②번 4점, ③번 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 (2점)	12점
(11)	(다), (라)는 사회적 돌봄체계,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족관계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함. 또한 (가)~(마)를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크게 ①물리적 밀도를 낮추는 방안, ②심리적 밀도를 낮추는 방안, ③사회복지 측면의 정책적 방안 및 양성평등 문화와 연관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다), (라)를 참고로 저출산 원인을 정책 및 성평등 문화의 측면과 연결해야 함 - 위 항목을 결여하거나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감점함 (3점) - 위 해설의 해결 방안 세 가지가 모두 답안에 제시될 경우 정답 인정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5점 감점(총 15점 감점 가능) ① 물리적 밀도를 낮추는 방안은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를 줄인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논리성을 판단 후 정답 인정 또는 부분 점수 부여 ② 심리적 밀도를 낮추는 방안은 다소 추상적인 답안도 논리성을 판단 후 정답 인정 또는 부분 점수 부여 ③ 사회적 돌봄 체계,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족관계와 관련된 방안은 논리성을 판단 후 정답 인정 또는 부분 점수 부여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 (2점)	20점

2024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사회계열)

문항 1~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제시문

(가)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재화의 분배’에 있어 이해관계의 갈등이다. 롤스는 사람들이 이 이익 분배를 위한 기본조건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롤스는 사회적 갈등(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아무런 가치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절차의 공정성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롤스는 파이 나누기를 예로 든다.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이를 나누려고 할 때, 이런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한 명이 파이를 나누도록 한 다음, 그 파이를 나눈 사람이 맨 나중에 자기의 몫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파이를 나누는 사람이 자신이 맨 마지막에 파이를 가져갈 것을 안다면,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파이를 최대한 똑같이 나누려 할 것이다. 롤스는 이것을 ‘순수절차의 정의’라 한다.

(나)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이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 정확히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원리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체제이다. 또한 마이클 영(M. Young)에 의하면, 지능과 노력이 결합되어 업적, 능력(Merit)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만 지위의 배분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능력주의의 핵심이다. 영은 능력의 평가에서 지능검사와 시험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따라서 능력주의를 무엇보다 입시와 취업과 같은 영역과 관련시킨다. 하지만 현재의 다양한 사회비평가들은 영의 논의를 확장해서 ‘능력, 업적 혹은 노동에 따른 보상만이 정당하다’라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관념을 능력주의로 규정한다. 이런 관념에 기반해서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재화를 어떤 사람의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이나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 기여, 노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분배하거나 할당하는 것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다) 노직은 ()의 할당 문제만을 정의의 주제로 간주하여, 사회적 재화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소국가 내에서 보장받은 개인의 권리 및 자유가 분배라는 명목하에서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직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원을 관리하고,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인 교환과 선물을 포함하는 개인들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몫의 분배 또는 분배 활동과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노직은 사회제도에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를 도외시킨 채, 국가의 개입보다 개인적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을/를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간주하였다.

(라)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말한다. 얼핏 보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성립하려면 세습이나 상속과 같은 외부효과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이 측정되어야 하며, 재능, 노력,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차등 분배에서 비례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한국의 능력주의』의 저자는 이 전제조건 중 어떤 것도 정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능력주의 자체가 허구라고 본다. 분배의 기준으로 가장 공정해 보이는 노력조차도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난점이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산출한 어떤 것을 모두 마땅히 받으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참된 노력으로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부의 압도적 원천이 지식인 사회에서, 지식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볼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인 기여의 측면이나, 그에 따른 응분의 몫이라는 관념은 설 자리가 거의 없다.

(마) 천부적 재능에 의한 능력주의와 직접 결부되는 정의의 원칙은 제2원칙이다. 이를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최대 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평등의 수준을 높이고,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타인의 이익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기에, 이에 관한 결과와 상관없이 재능의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1) (가)를 참고하여 아래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쓰시오. (5점)

<보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합당한 몫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지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흔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런 정의는 () 정의라 불린다.

(2) (다)의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권리를 제시하시오. (5점)

(3) (라), (마)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4)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마)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공정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은 합리적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이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한다.

(5) 아래 <보기>의 ㉠, ㉡을 (나), (마)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고, ㉡과 유사한 사례를 한 가지만 제시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 대학교는 수시 모집 전형에서 ㉠ 일반 전형, ㉡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반 전형에는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와 면접, 구술 고사 및 실기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한다. 한편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은 사회적 소외 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로를 마련한 전형이다. 이 전형은 정원 외 모집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 및 실기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예시 답안

(1)

분배적 또는 분배의

(2)

소유권리 또는 소유권

(3)

능력주의는 ‘각 개인은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런 능력이 그 자체로 ‘온전히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며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4)

<보기>는 (가)의 절차적 정의와 결부되어 있다. 무지의 베일과 같은 절차적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배의 절차만을 중시한다. 이것을 롤스는 ‘무지의 베일’의 개념으로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반면에 (마)는 이런 절차적 정의가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5)

① 일반전형은 서류나 면접 평가, 실기 평가 등을 통해 응시자들의 실력을 평가하여 이런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한다는 점에서 (나)의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전형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에 (마)의 최소 수혜자(최대 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기회 균형 전형은 최소 수혜자인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불운을 겪은 사람들도 그들의 자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회 균형 전형은 (마)의 입장을 취하기에 능력주의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 균형 전형은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능력이나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나) 입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② 여성 고용 할당제/장애인 의무고용제 등등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통해 롤스가 다루는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의 연원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함 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전통 아래에서, 분배적 정의의 관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 이 때문에 <보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는 분배적 정의가 핵심임 - 따라서, 괄호 안에 ‘분배적’ 정답임 - ‘분배의’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함 - 괄호 밖에 ‘정의’라는 말이 있음에도 괄호에 ‘분배적 정의’라고 적거나 ‘분배’라고 적으면 2점 감점함	5점
(2)	제시문 (다)는 노직의 소유권에 대해서 기술함 노직은 다른 모든 권리 중에서 소유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중시함 -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소유권’, ‘소유권리’ - 노직의 소유권 개념을 자유주의 사상으로 불리기에, 제시문의 맥락상 ‘자유권’도 부분 점수를 허용함(3점)	5점
(3)	- 제시문 (나)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지능과 같은 태생적 운이나 업적에 기반해서 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관념이며, 이를 중립적 관점에서 기술함 - 제시문 (라)는 능력주의의 주요한 잣대인 재능, 노력, 기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줌 - 제시문 (마)는 천부적 재능에 의한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관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다룸 -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제시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 -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감점함 (3점) - 능력주의 문제점이나 차등의 원리(최소 수혜자 우선의 원칙)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감점함 (5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 감점함 (3점)	10점
(4)	- 제시문 (가), (마) 모두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제시문 (가)는 분배의 과정에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에 대해 기술함 - 제시문 (마)는 절차적으로만 재화를 분배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최대 약자)를 분배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보기>는 계약주의 전통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로서 롤스는 이 개념을 통해 절차적으로 공정할 때에야 사회구성원들이 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함 - 이를 위해 롤스는 분배에 참여한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분배의 몫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 <보기>는 (가)의 순수 절차의 정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우위에 두기보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의 정당성 혹은 합리성만을 고려하는 것에 반해, (마)는 절차적 정의가 해결할 수 없는 분배 이후의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함 - 답안에는 (가)의 절차의 합리성/정당성이 기술되고, (마)의 불평등이 비교되어야 함 - 한 가지만 작성할 시에 감점 (4점), <보기>와 (가)의 연관을 언급하지 않으면 감점 (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주어진 분량의 60% 이하) 감점함 (3점)	
(5)	- 제시문 (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업적을 중시하는 관점을 취함 - 제시문 (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생산된 다양한 결과들이 불평등을 양산하기에 이런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 - 문제는 ㉠일반 전형과 ㉡기회 균형 전형을 각각 능력주의와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분석해야 함 - ㉠일반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 그리고 구술고사 및 실기평가 등을 통해 사람을 선발하기에 업적에 따른 보상을 중시함(능력주의) - ㉠일반 전형은 최소수혜자 우선의 원칙으로 볼 때는 약자를 우선하기보다 모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제함(차등의 원칙) - ㉡기회 균형 전형은 소외계층에게도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 등 최소수혜자(최대 약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함(차등의 원칙) - ㉡기회 균형 전형은 최소수혜자가 아니라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능력보다 사회적 배려를 우선하는 문제가 있음(능력주의) - 기회 균형 전형과 유사한 사례제시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지역·성별·인종·경제적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조치와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이 차별에서 벗어나서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함 -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여성 고용 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을 제시해야 함 - 따라서 답안은 4가지 경우와 적극적 우대 조치를 모두 적어야 하고, 위에 제시한 사항을 기초로 평가함 (정책제시가 결여할 시 3점 감점, 각 항목별로 결여 시 3점 감점. 총 12점 감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 감점함 (2점)	20점

문항 6~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제시문

- (가) 프랑스에서 ‘역사학의 교황’이라 불렸던 페르낭 브로델(F. Braudel)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전개되는 방식과 한계를 규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이 바로 그의 책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1권에서 소개하는 ‘장기지속’이다. 예를 들어 브로델은 서구와 중국 및 동아시아의 삶의 양식에 대한 다면적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쌀과 밀의 차이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 (나) 청동기 시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량 생산을 증대할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 방법이 바로 물을 이용한 벼농사였다. 벼농사는 논을 만들어 물을 대는 작업이나 김매기, 벼 베기 등에서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단을 중요시하는 정서가 생기고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인 한반도에서 저수지, 수로 같은 관개 시설을 만들고 논이 물 높이를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고된 일이었고 더 강력한 집단적인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수로와 저수지 등 관개 시설을 건설하려면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조직이 필수였다. 반면, 밀은 맨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여 관개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모여 살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밀 농사를 짓는 사회는 개인적인 생활 방식이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보인다. 또한 관개 시설을 만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지방분권도 발달했다.
- (다) 벼농사 위주의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서로의 수확량을, 서로의 성적을, 서로의 소득을, 서로의 직업적 성공을 수시로, 1년 열두 달, 인생 전체에 걸쳐 비교하고 평가한다. 질투와 시기기는 바로 이러한 비교에서 싹튼다. 이 비교의 쳇바퀴 속에서 패배자는 불행해진다. 행복의 준거가 자기 내면에 있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비교에 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자식이, 내 가족의 수확량과 소득과 지위가 이웃보다 더 많고, 더 높고, 더 우월해야 한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남의 눈으로, 남의 입으로 확인받을 때 벼농사 지역의 정주민은 더욱 행복해한다. 즉, 벼농사 지역 정주민들의 행복의 원천은 ()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 (라) 동아시아 시민들의 사고에는 개인주의자들의 공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바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이 자기 체면을 구기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이다. 동아시아인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평판의 저하를 모두 고려한다. 이와 같은 문화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나는 이 ‘사회적 조율의 기예’가 수천, 적어도 수백 년 동안 마을 단위로 경영해온 공동노동 시스템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농촌사회에서 한 개인의 수확량(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나의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협업 네트워크의 노력, 그리고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나의 역할과 평판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마) 벼농사 체제에서 여성은 핵심적인 인적 자본이었다. 가구 단위에서는 높은 노동력 재생산과 육아를 책임졌고, 일손이 달릴 때는 언제든지 농사일에 스스로를 투입했으며, 수많은 두레와 품앗이, 마을 잔치의 음식과 뒷정리를 감당했다. 모두가 배를 두드리며 쉬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잠자리를 준비할 때, 여성은 삼베 짜기 품앗이를 돌리느라 별 보기 운동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을 단위 의사 결정 구조에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알레시나(A. Alesina) 외(2013)는 밀이나 쌀과 같은 곡물 재배를 위해 땅을 갈아엎는 쟁기를 사용한 문화권에서 남성은 논밭 일에, 여성은 가정일에 집중하는 성별 분업이 강화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철승(2021)은 쌀 재배 지역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압력이 여성을 집안일에 속박시키는 성별 분업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나아가 이와 같은 차이가 현대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사회별·국가별 차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6) (가), (나),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농사의 유형(작물)과 동양/서양, 개인주의/집단주의 사이의 관련성을 ‘A농사 - B지역 - 개인주의’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시오. (5점)

<보기>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보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봐도 동서양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서양인들은 주로 ‘친절하다’, ‘근면하다’ 같은 성격 형용사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서술한다. 반면, 동양인들은 대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동원해 대답한다.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 등의 표현처럼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동양인들의 대답 속에는 맥락을 중시하는 문화가 옳듯이 드러나고 있다.

- (7) (다)의 괄호 안에 문맥상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문장을 쓰시오. (3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 (8) (나)를 참고하여 동양과 서양 중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이 발달할 가능성은 어느 지역이 더 높을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 (9) (나)~(라)를 참고하여 아래 <보기>에 제시된 실험을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실험 참여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원을 어떤 크기로 그릴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보기>

사회관계도 그리기 실험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자신과 친구들을 원으로 표현한 후 이를 연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자신과 친구를 표현할 때 그리는 원의 크기는 각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과 유럽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각각 6mm, 3.5mm 정도 크게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 (라)를 참고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때 동양권과 서양권 국가의 정책 수용성 정도를 추론하고,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 (11) (가), (나), (마)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의 성차별 및 성별 분업의 역사적 양상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리고 (가), (다),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행복지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추론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1.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려는 경향과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2.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이 밖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쇼펜하우어 -
3. 한국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5위를 차지했다.

■ 예시 답안

(6)

‘쌀(벼)농사 - 동양 - 집단주의’, ‘밀농사 - 서양 - 개인주의’

(7)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8)

벼농사가 주인 지역에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쉬우며, 관개 시설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노동력 동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동양에서 협력의 문화에 바탕을 둔 대규모 노동력 동원을 위한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9)

밀농사가 주류였고 개인주의가 강했던 지역과 달리 한국은 벼농사에 기반한 집단주의가 더 강한 사회이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준거가 타인과의 관계 및 비교 등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원을 작게 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답안 2)

(나)~(라), 그리고 <보기>를 살펴보면 한국은 벼농사에 기반한 집단주의 사회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의 준거는 타인과의 관계, 비교 등에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이나 유럽인과 달리 자신을 표현하는 원을 작게 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10)

동양권 국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 전파로 인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고 이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의무화에 보다 협조적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1)

(가), (나)에 따르면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벼와 밀이라는 작물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이는 오랜 기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마)는 이러한 차이가 성별 분업 및 성차별 정도의 차이까지 연결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성별 분업은 벼농사,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 증가의 압력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와 <보기>를 통해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행복관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행복의 기준은 내면에 있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에 달려 있기에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SNS 사용의 보편화로 비교 성향 및 기회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사회의 근본적인 속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낮은 행복지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등할 여지는 많지 않다.

(가능답안 2)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자연 환경, 특히 재배하는 작물의 유형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형성된 특성은 쉽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성별 분업과 성차별의 기원, 그리고 행복지수의 향후 변동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 벼농사 체제는 인구 증가로 인한 압력을 만들고 높은 수준의 노동력 재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을 가사와 육아 등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성별 분업 및 성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벼농사 체제에서의 행복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행복관과는 달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비교와 그 속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최근 SNS 사용의 보편화로 비교 성향 및 기회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앞서 언급한 문화적 특성의 장기 지속성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가), (나)는 동양과 서양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의 근본 원인으로 쌀(벼)농사와 밀농사를 지적하고 있음 동아시아 지역(동양)은 쌀농사가 주가 되었으며, 이는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창출되는 반면, 서양 지역은 밀농사가 주가 되었으며, 이는 협력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이 자리잡게 된다는 점이 핵심 - 또한 <보기>는 서양인은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동양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동원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쌀(벼)농사 - 동양 - 집단주의’, ‘밀농사 - 서양 - 개인주의’가 정답임 - 예를 통해 답안의 형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형식(서술형 등)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둘 중 하나만 정답일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농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쌀(벼), 밀만을 언급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5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동양이라는 단어, 서양이라는 단어 대신 이와 유사한 용어(예: 동아시아, 서구 등)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 집단주의, 개인주의라는 단어 대신 이와 유사한 용어(예: 공동체 문화, 독립적인 성향 등)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단, 의미가 충분히 유사해야 함)	
(7)	(다)는 벼농사 지역의 정주민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 그리고 이 비교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답안에 ① ‘비교’, ‘평가’와 같은 단어, ② ‘우위’, ‘우월’ 등과 같은 단어(혹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③ ‘인정’ 등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함 - ①, ②, ③에 해당되는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이 제시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 이 중 한 가지만 제시된 경우 감점함 (2점) - 괄호를 채웠을 때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20자 이하) 감점함 (1점)	5점
(8)	(나)는 동아시아 지역(동양)의 경우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벼농사가 주가 됨에 따라 집단과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생했다는 점, 수로와 저수지 등 관개 시설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노동력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이 먼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서양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가 더 먼저 등장하게 된다고 서술하는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나)에 제시된 벼농사의 특징(협력의 필요성 또는 관개 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노동력 동원의 필요성)을 답안의 이유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감점함 (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 (1점)	5점
(9)	(나)~(라),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양은 밀농사 중심의 사회이며 개인주의 의식이 더 발달한 반면, 동양은 벼농사 중심의 사회이며 집단주의 의식이 더 발달함 벼농사 지역의 경우 비교(관계 속에서의 비교), 평가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함 - <보기>는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경우 자신을 표시하는 원의 크기를 친구를 표시하는 원에 비해서 더 크게 그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원을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원보다 작게 그릴 가능성이 높다 - ‘자신을 표현하는 원을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원보다 크게 그린다’고 언급하는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자신과 타인을 표현하는 원을 유사한 크기로 그린다’ 혹은 ‘같거나 작다’ 등은 답안의 논리성에 따라 정답으로 인정함 - 추론의 근거로서 벼농사 문화권의 집단주의 의식과 연관된 특징들(비교, 평가, 관계 등)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감점함 (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 (1점)	5점
(10)	(라)는 공동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평판이 저하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서의 기원을 벼농사와 연계된 공동노동 시스템에서 찾고 있음 - 이를 토대로 동양(벼농사 문화권)의 경우는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및 타인에 대한 전염으로 공동체 내 평판의 저하를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마스크 의무화’에 보다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음 - ‘해’(혹은 이와 유사한 단어), ‘평판(의 저하 혹은 이와 유사한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감점함(각 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 (1점)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가), (나)는 동양과 서양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의 근본 원인으로 쌀(벼)농사와 밀농사를 지적하고 있음 (마)는 농사의 차이로 인해 성별 분업과 성차별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 따라서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성별 분업은 역사적으로 볼 때 ① 벼농사, 그리고 ② 이로 인한 인구 유지에 대한 압력(혹은 이와 유사한 내용 제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함 위에 제시한 사항을 기초로 평가함 (각 항목별로 결여 시 3점 감점, 총 6점 감점) (다)는 벼농사 지역의 정주민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 그리고 비교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행복을 느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보기>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비교 경향 및 기회가 강화되고 있으며, 행복지수의 수준이 낮다는 점,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행복의 기준, 즉 행복의 기준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다)를 고려하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행복의 기준과 한국 사회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고 (한국 사회의 행복의 기준은 관계 속에서의 비교에 있다) - SNS 사용의 증가로 인해 이와 같은 성향과 기회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 한국 사회의 행복지수는 향후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음 - ‘장기지속’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이 행복지수 변화, 혹은 성차별이나 성별 분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1번 이상 제시되어야 함 위에 제시한 사항을 기초로 평가함 (각 항목별로 결여 시 3점 감점. 총 12점 감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 (2점)	20점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1~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가) 국제 사회는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여러 행위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주권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외교, 조약, 군사적 대응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세계화가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제 문제는 국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는 분쟁 당사국 사이의 협의와 중재를 돕고, 난민 보호, 인도적 지원,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한다. 비정부기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쟁 피해자 구호, 인권 침해 감시, 환경 보존 등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다국적 기업도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이다. 여러 국가에 걸쳐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과 판매를 수행하며, 분쟁 지역과 관련된 거래, 노동권 침해, 자원 조달, 공급망 관리에서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개인과 시민사회 역시 평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시민은 기부, 자원봉사, 여론 형성,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 (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 평화라고 한다면,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빈곤과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줄어든 상태는 (㉡)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이러한 평화의 상실을 보여준다. 군사 침공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거지, 학교, 병원, 식수, 전력 시설, 교통과 같은 생활 기반을 파괴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피난민이 늘어나고, 가족과 공동체가 흩어지며, 교육과 노동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피해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오래 지속된다. 결국 강대국의 일방적 침탈은 특정 영토를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국 시민의 일상, 권리, 미래의 삶을 함께 무너뜨린다.
- (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폭력을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물리적 폭력은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폭행이나 전쟁, 무력 분쟁과 같은 파괴행위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침공, 폭격, 민간인 피해는 이러한 물리적 폭력에 해당한다. 둘째, 구조적 폭력은 사회 제도, 법, 관습, 경제 구조, 정치 등이 사람들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간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갈통에 따르면, 폭력은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사회 시스템에 의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일어난다.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이 자국을 떠나 살면서 교육과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내전 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정치적 권리와 생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념, 언어, 종교, 예술, 역사 해석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열등하거나 위협한 존재로 묘사하고, 침략을 안보나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이는 문화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
- (라) 위험사회 이론을 제시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도 커지고, 그 위험이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고 보았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풍요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 핵위험, 감염병, 금융위기, 환경오염처럼 특정 국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어냈다. 전쟁 역시 현대 위험사회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의 피해가 주로 전투 지역과 주변 국가에 집중된다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지역의 전쟁이 전 세계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된다. 위험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전쟁은 분쟁 당사국 사이의 충돌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복합적 위험이다. 따라서 평화는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만든 위험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집중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리

히 백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제도와 발전 방식의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바꾸어 가는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마) 요한 갈통의 세 가지 폭력론과 올리히 백의 위험사회 이론은 모두 현대 전쟁을 단순한 군사 충돌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이란 군사 충돌과 같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히 전투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민간인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를 절대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언어, 제재와 봉쇄로 인한 생활 조건의 악화는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 동시에 에너지 가격, 물류, 금융시장, 난민 문제의 변화는 다른 지역의 사회와 경제에도 불안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평화를 논할 때, 직접적 충돌뿐만 아니라 갈등을 지속시키는 인식과 제도, 그리고 그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 (1) (나)의 ㉠과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각각 적으시오. (5점)

- (2) <보기>의 밑줄 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을 (다)에서 찾아 2어절로 적으시오. (5점)

<보기>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조선총독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일제는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보안법(保安法)을 제정해 일본은 조선인들의 집회와 결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문서 게시나 언행을 단속하고, 정치에 관한 집회를 금지하여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을 해산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모든 정치결사, 집회가 금지되었다.

- (3) (마)를 참고하여 (다)와 (라) 각각의 입장이 현대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 (4) <보기>를 참고하여 (라)의 ㉠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파키스탄 북부에 올여름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과 함께 수십 톤의 바위가 쏟아져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이 홍수에 휩쓸려갔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52%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 (5) (가) ~ (라)를 참고하여 <보기>의 사회가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시오. 단, ① <보기>의 평화 상태에 대한 진단, ② 구조적·문화적 폭력 개념과의 연결, ③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미래 사회는 전쟁, 빈곤, 심각한 갈등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계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계층과 역할에 맞게 길러지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생활방식에 만족하도록 교육받는다. 국가는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감정, 욕망, 관계, 직업 선택을 관리한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과 소비를 통해 불만을 잊고, 사회가 정해 준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사회는 스스로를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선택하며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할 자유를 잃어간다.

■ 예시 답안

(1)

㉠: 소극적, ㉡: 적극적

(2)

구조적 폭력

(3)

갈통의 폭력론은 현대 전쟁을 침공과 폭격 같은 물리적 폭력, 시민의 교육, 의료, 생계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설명한다. 반면 백의 위험사회 이론은 전쟁의 위험이 국경을 넘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위험 현상이라고 본다.

(4)

<보기>의 사례는 위험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식량, 금융 등의 문제와 같은 전쟁의 위험은 전쟁 수행국을 넘어 취약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위험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와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를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보기>의 사회는 전쟁과 빈곤, 심각한 갈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계층과 역할이 정해지고, 교육과 소비를 통해 그 질서에 만족하도록 관리되므로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갈통의 관점에서 ‘행복’과 ‘안정’이라는 언어는 차별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며, 계층 배정과 조건화 교육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위험사회에서 개인은 국가가 불안과 질서의 명분으로 행사하는 통제와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여론 형성,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도 관심을 갖고 연대해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키는 성찰적 근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나)에 나타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에 ‘소극적’, ㉡에 ‘적극적’이 정답임(각 2.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2)	<보기>의 일제강점기 사례를 (다)의 갈통의 폭력론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구조적 폭력’이 정답임(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3)	현대 전쟁을 갈통의 폭력론과 백의 위험사회 이론에 비추어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갈통의 폭력론이 전쟁을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점을 적절히 제시함(4점) - 백의 위험사회 이론이 전쟁의 위험이 국경을 넘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 등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제시함(4점) - 두 이론의 차이를 ‘폭력의 정당화 및 재생산 구조’와 ‘위험의 초국경적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10점
(4)	<보기>의 사례를 통해 위험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라)의 위험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전쟁 위험의 관리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위험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서술함(4점) - 현대 전쟁의 위험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 등으로 확산될 수 있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음을 설명함(4점) - 국가와 국제사회의 협력 또는 공정한 위협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5)	제시문 (가)~(라)를 종합하여 <보기>의 사회가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전쟁과 빈곤, 갈등이 적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가 실현된 듯 보이지만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사회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함(5점) - ‘행복’, ‘안정’이라는 담론이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을 문화적 폭력과 연결함(5점) - 계층 배정, 조건화 교육, 직업·감정·욕망 관리가 삶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구조적 폭력과 연결함(5점) -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위험과 통제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5점) - 글의 논리성과 표현의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핵심 개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면 감점함(1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점

문항 6~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의 책임을 인정해, 생존자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출했다. 또한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등의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하였다. 이렇듯 독일은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재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 (나) ㉠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을(를) 개인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반면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좋은 삶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 (다) 롤스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을(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에서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를 정의롭다고 여긴다.
- (라) 마르크스는 정의와 권리라는 언어의 사용을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어떤 사회의 분배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과정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한 사회를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그 생산과정에 대한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와 “동등한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이데올로기적인 허튼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사회에서 결핍과 갈등은 감소하여, 분배적 정의 원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와 권리 개념에 대한 의존을 필요하게 만드는 결함 있는 생산양식이라고 보았다.
- (마) 정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사회, 학자마다 달라서 이 개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난다.
- ㉢ 능력 기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분배 방식이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높여 주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능력 중 일부가 우연적·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
- ㉣ 업적 기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경우 더 많은 보상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그 성과를 분배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창의성과 같은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해주지만, 과열 경쟁이 되거나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의 어려움에 부닥칠 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 ㉤ 필요 기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이, 혹은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 외적 조건에 의한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하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6) (나), (다)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3음절로 쓰시오. (3점)

(7)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3음절 단어를 (마)에서 찾아 쓰시오. (3점)

<보기>

다양한 () 현상은 정의로운 사회로의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 부조,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적 () 완화에 도움이 된다.

(8) (마)의 ㉞는 (다)의 롤스와 노직 중 누구의 입장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9) (라)의 정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입장에서 (나)의 ㉠과 ㉡을 비판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10) <보기>의 센의 주장이 (마)의 ㉢ ~ ㉤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쓰고, 센의 입장에서 (마)를 참고하여 (다)의 노직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공공적 가치를 물질적 재화가 아닌, ‘재화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재인식하여,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강조했다. 잠재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 ‘삶의 폭’, 즉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말한다. ‘잠재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적절한 영양을 얻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요절하지 않는 것,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것,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등이다. 그중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범위는 이동, 의식주, 위생·의료, 물리적 안전, 초등교육 등으로 좁혀진다.

(11) <보기>의 두 입장이 (나)의 ㉠과 ㉡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또한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의 전자의 입장에서 후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철수 : 자부심과 수치심이란 윤리, 집단적 책임이란 윤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누구라도 미국독립선언서, 헌법,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 등을 존경하거나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서 특정 집단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영희 :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개인의 선택만이 자신을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세대가 행한 잘못을 책임질 것인가는 책임을 지겠다는 현재 세대의 선택이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독일인이 행한 잘못을 책임지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독일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예시 답안

(6)

소유권

(7)

불평등

(8)

(마)의 ㉞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이다. ㉞는 ㉣와 달리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다)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롤스보다 소유권을 강조하는 노직의 입장에 더 가깝다.

(9)

(라)의 정의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 산물이란 견해다. 그에 따르면, (나)의 ㉠과 ㉡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가깝다.

(10)

센은 ㉢의 필요 기준의 정의를 주장한다. 센은 공공적 가치, 즉 정의가 ‘기본적인 잠재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노직은 능력의 우연성, 선천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1)

<보기>에서 영희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가깝고, 철수의 입장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가깝다. 그 이유는 영희의 경우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고 현재 세대의 의무는 과거 세대의 그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철수의 경우 국가로 대표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은 자부심과 수치심이란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철수의 입장에서 영희를 비판하자면, 현대의 모든 인류는 국민의 범주에 속하므로, 개인의 자아는 그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인이 과거 유대인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오직 독일인만이 그 학살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기 공동체의 역사적인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세대가 행한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나), (다), (마)는 근대 사회에서 정의 개념에 대한 학자나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다루는 내용임 - 정답은 ‘소유권’임 - 본문을 통해 답안의 명확한 형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오답으로 처리함(0점)	3점
(7)	<보기>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임. 불평등의 유형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룸 - 정답은 ‘불평등’임. - 문제에서 답안의 명확한 형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불평등’ 이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0점)	3점
(8)	(다) 제시문은 같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도 크게 2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임 (마)에서 제시된 정의는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므로, (다)에서 제시된 2가지 입장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노직에 가깝다고 쓰지 않은 경우 오답 처리함(0점). 특히 롤스가 공동체주의자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엄연한 자유주의자이므로 복수 정답은 없음. - 단순히 노직에 가깝다고만 쓰고 이유를 쓰지 않을 경우 감점함(4점) - 이유의 경우 노직이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7점
(9)	(라) 제시문은 앨런 튜캐넌의 『맑스와 정의』를 원문으로 함. 이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모두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의 관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입장임 - 위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 만점을 부여함 - (라)가 어떤 입장인지 간단히 서술하지 않으면 감점함(2점)	7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라)의 입장이 ㉠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각각 충돌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분 감점함(2점), 또한 (라)의 입장이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을 비판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분 감점함(2점, 총4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10)	<보기> 속 센의 입장은 단순한 기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재화와 사람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차이나 외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음. 센의 입장은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의 입장처럼 업적에 따라서 다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가 정답이 될 수는 없음 - 센의 입장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이 정답임(3점) - <보기> 속 센의 주장, 즉 ㉢에 따라서 노직의 주장, 즉 ㉣를 비판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감점함(5점). 단순히 <보기> 본문이나 (마)에서 제시된 ‘능력 기준의 정의’, ‘필요 기준의 정의’, ‘업적 기준의 정의’, ‘잠재능력’만이 언급되는 경우도 감점함(3점). 썼지만 논리가 부족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도 부분 감점함(1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2점)	10점
(11)	<보기>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며, 이에 따르면 영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철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음. 그렇다면 각각 (나)의 ㉠과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철수가 ㉡, 영희가 ㉠이 아닌 답안은 모두 감점함(5점). 또한 각각 이유를 쓰지 않을 경우 부분 감점함(3점) - 철수에 따르면, 현재 소속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과거 저지른 일에 대해 개인이 자부심과 수치심을 갖고 있다면 응당 그것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자부심 및 수치심, 혹은 집단적 책임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분 감점함(5점) - 또한 철수의 입장에서 영희에 대해 비판할 때, 이 맥락이 독일의 과거사 청산 등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감점함(5점) - 이외에 개연성 있는 내용을 서술했을 경우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점수를 인정함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점

2026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1~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 (가) (㉠)는/은 개별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하여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단, 개인이 자유를 누리 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과/와는 구별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롤스는 개인의 재능 차이는 계층의 차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참된 기회 평등을 달성한 사회라 해도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며, 각자의 타고난 능력 차에 따라 빚어진 불평등까지도 살펴봐야 한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펼치되, 시장 사회에서 거둔 성과를 능력이나 자격을 내세워 독점하지 못하게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는 반드시 우연한 배분이 가장 불운한 사람에게 이롭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이 자신의 우월한 특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과 ‘그런 특성을 계발해 나가는 노력이 자격을 확보한다’는 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대체로 운이 좋아서 건강한 가정과 지지적인 사회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된 것이며, 그런 운에 대해 개인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나의 소득 일부를 가져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비로 쓰거나 도로를 만드는 데 쓰더라도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 (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한 사회에서 부, 권력, 명예 등의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 불평등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 권력과 같은 정치적 측면, 교육의 기회나 건강 관리와 같은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 현상은 재산과 소득 분배에서의 격차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여가, 교육 등 삶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 이동이 어려워질 때는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라) AI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이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직원의 채용 등 기업에서의 인사 관리 장면에서 빅데이터의 지원을 받는 소위 ‘인간 분석(People 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인간인 고용주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어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편향적’일 수 있으며 채용 시 지원자를 차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과거에 여성보다 주로 남성을 채용한 기업의 이전 선발 과정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해당 기업이 남자 지원자들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향후 채용 과정에서도 남성 지원자들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 (마)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32개국 중 6번째로 인구의 지리적 집중도가 높은 나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지방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1970년대 지방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60% 수준에서 2018년에는 19%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수도권 집중은 토지, 주택 및 임대 비용, 생활비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 수준을 상승시켜 생산요소 비용을 증가시키며 혼잡비용, 환경비

용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시킨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역별 불균등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이 결국에는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구 측면에서 수도권이 특별한 수혜를 입는 것도 아니다. 청년들의 대도시로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비 및 생활비 등의 상승과 더불어 경제·사회 측면에서의 경쟁 심화로 저출생을 야기한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014년 0.98명에서 2024년에는 0.58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

- (1) (가)의 ㉠와 ㉡에 들어갈 단어를 각각 적으시오. (5점)
 (2) <보기>의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나)에서 찾아 두 어절로 적으시오. (5점)

<보기>

경기도 OO시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12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했으며, 올해도 총 5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공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OO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꾸준히 발굴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공직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3) <보기>를 참고하여 (라)에서 제시된 문제가 (마)의 현상과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론하시오. (1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2025년 국내 10개 대형 로펌(law firm) 신입 변호사 27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중 77.2%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 로스쿨 출신은 단 3명(1.10%)에 불과했다.

- (4) (마)의 문제에 대한 (가)의 노직과 (나)의 롤스의 입장을 정리하고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2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5) (가)의 노직의 입장에서 (다)의 ㉠에 대해 분석한 뒤 (나)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비판하고, <보기>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한 가지 사례를 들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450자 내외) (20점)

<보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매킨타이어는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와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의 역사는 항상 개인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가족, 도시, 친족, 민족,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 도시, 민족, 국가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으며,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 예시 답안

(1)

㉠: 자유주의, ㉡: 이기주의

(2)

차등의 원칙

(3)

AI 알고리즘이 기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면 지방대 출신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디지털 편향에 의한 지역 차별은 지역 간 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방 소멸 및 인구 불균형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4)

노직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지방 도시가 개인의 자발적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롤스는 특정 지역이 성과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방 거주자들에게 교육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5)

(가) 노직의 입장에서 ㉠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의 롤스는 이러한 입장이 개인의 출발선의 차이를 무시하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보기>의 매킨타이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의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돌봄, 고용, 환경 등)를 해결하고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동체 기반 정의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함 - ㉠은 ‘자유주의’, ㉡는 ‘이기주의’가 정답임(각 2.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2)	(나)의 내용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기>의 사례는 롤스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인 ‘차등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특정 능력 있는 사람이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함 - ‘차등의 원칙’이 정답임(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3)	(라)는 AI 알고리즘 기술이 이러한 불평등을 은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통한 공간 불평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특히 (라)에서 언급한 AI 알고리즘 기술의 편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보기>에서 제시한 채용 장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AI 알고리즘 기술이 이러한 편향된 데이터를 습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지 확인함 - AI 알고리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해 언급함(4점) - <보기>를 참고해 실제 채용, 입사 등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예시를 제시함(3점) - AI의 편향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 불평등에 대해 언급함(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20자 이하) 감점함(1점)	10점
(4)	(가)와 (나)는 각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노직)과 자유주의 내에서 시스템을 통한 분배를 강조한 정의관(롤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음. (가)의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중시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의 롤스는 우연한 요소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봄. (마)에서 제시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공간적 불평등의 대표 사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철학적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문제를 통해 노직과 롤스의 관점을 각각 적용해 보고, 각 입장에 기반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가)의 노직 입장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철학적 관점(2점)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3점) - (나)의 롤스 입장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철학적 관점(2점)과 정부 개입 및 재분배 정책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200자 이내)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5)	(다)의 ㉠은 사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의 노직은 이러한 불평등이 개인의 자유와 정당한 소유이기에 재분배 정책은 정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함. 하지만 (나) 롤스의 관점에서는 노직이 사회 구조적 격차와 출발점의 차이를 간과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더하여 <보기>에서 제시된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적 존재로 보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의 책임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따라서 본 문제를 통해 노직의 관점을 적용해 불평등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롤스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다)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내용을 (가)의 노직 관점에서 분석함(6점) - 노직의 입장이 갖는 한계를 롤스의 관점에서 비판함(7점) - <보기> 속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설명하고,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례를 제시함(7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2점)	20점

문항 6~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가) 그는 이번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파트 복도 저쪽 편의 문이 열리고,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이쪽을 기웃거리며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아니 뭐라고요?”
그는 튀어 오를 듯한 분노 속에서 신음 소리를 발했다.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주인을 당신 멋대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도 이 방에서 3년을 살아왔소.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오.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소?”
- (나)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성향의 확산이 맞물려 혼자 밥을 먹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 혼자 활동하는 성향이 강한 ‘나홀로족’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혼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나홀로족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암울하게만 그려졌던 나홀로족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1인 전용 식당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혼자 먹기 좋은 분위기 좋은 맛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홀로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실종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상 대화가 직접 만나는 주변 사람과의 대화보다 나을 수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소도시에서 사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는 매일 페이스북으로 고향의 자녀와 연락을 하며, 낭포성 섬유증 환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같은 병을 앓는 이를 한 명도 알지 못하지만 온라인에 형성된 지지 모임에서 위안을 얻으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어느 할머니는 예전에는 불가능하던 방식으로 손주들과 연락한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셜 미디어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공동체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구명줄이 되어주며 고립을 조금 더 건널 만하게 해준다.
- (라) 무례하고 무뚝뚝하고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도시인의 이미지는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덜 정중하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규모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언제라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 그 사람에게 조금 무례해도 괜찮다고 느낀다. 익명성은 적대감과 무심함을 낳고,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로 채워진 도시는 너무나 익명적인 장소다.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은 UCLA에서 개발한 ‘외로움 척도’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주변에 늘 사람이 있지만 좀처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도시의 분주함과 부산함, 소음, 끝없이 쏟아지는 시각 자극에 압도된 도시인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에도 심리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향을 보였다. 우리는 헤드폰으로 귀를 덮고 선글라스를 쓰고 휴대전화를 보며 고립 상태에 파묻히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개인적인 보호막을 치고 길을 걷는다.
- (마) 아동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놀면서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거의 매일’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12학년의 비율이 2009년 이후로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우정이 현실 세계에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온라인 비디오 게임으로 옮겨갈 뿐인 것인가? 그것 역시 현실 세계의 우정만큼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아동은 대면 방식의 동기화되고 체화된 신체적 놀이가 필요하다. 반면에 자기 방에 혼자 머물며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끝없이 소비하거나, 계속 바뀌는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과 끝없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고는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길 기다리는 것은 아동에게 필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대체 형태의 상호 작용으로, 십대가 서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앗아간다. 이런 형태의 상호 작용은 남과 연결하고 싶은 충동을 피상

적으로 만족시키지만, 그러한 연결은 얇고 실체가 없고 불만족스럽다. 그들의 융화성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채 남는다.

- (6) (가)에 나타난 다툼의 원인은 도시의 어떤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라)에서 적절한 한 단어를 찾아 쓰시오. (3점)
 (7) (가), (나)를 참고하여 아래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심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추론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보기>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화되었고, 점차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 주민들은 촌락 주민들에 비해 이웃 간의 유대 관계가 낮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 성향이 강한 편이다.

- (8) (다), (마)를 바탕으로, 디지털 상호작용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9) (다)를 참고하여,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해 학교 교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같이 교육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 <보기>에 제시된 헌법의 기본권 중 어떤 기본권의 향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추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보기>

- ① 평등권: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② 자유권: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
- ③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
- ④ 청구권: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보상을 받을 권리
- ⑤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0) (마)와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증 및 불안 증세의 변화 양상을 논리적으로 예측하시오. (단, 답안 작성 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10대’와 ‘다른 사람들과 실제 만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 청소년 집단을 비교하고, ‘유대감’, ‘융화성’ 등의 용어를 답안에 포함할 것)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479.6분)으로 2019년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이 시행한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초등학교(4~6학년)의 경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 (가), (나), (라), (마),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시민들의 정치 성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그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예측하시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만 제시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 ① 반이민·반유대 정책을 내세우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리즘 추천 기능 탓이 크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가 즐겨 보는 영상을 계속 추천한다. 보수쪽 콘텐츠를 몇 번만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보수 성향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식이다.
- ② 유럽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회조사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안정, 동료 시민과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사회적 고립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비난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경향이 있고,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 ③ 사람들이 결속감을 느끼려면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공장소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곳에서 다름을 초월한 관계는 물론 모든 관계가 태동하고 발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교류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도시의 원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 예시 답안

(6)

익명성

(7)

‘개인주의’, 도시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쉽고, 이러한 경향이 심화된다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 증가, 사회 결속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8)

디지털 상호작용은 (다)에서처럼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공동체 연결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마)처럼 실질적 유대를 제공하지 못하고 상호 작용의 욕구를 피상적으로만 충족시켜 정서적 불만족이나 사회성 저하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9)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수업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고 학습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보기>에서 말하는 사회권,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10)

(마)에서 나타나듯 디지털 상호작용만을 주로 하는 청소년은 융화성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어울리는 청소년은 사회적 유대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보기>를 고려하면 향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 증가와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1)

도시화는 (가), (나), (라)에서 보이듯 익명성과 개인주의, 적대감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마), <보기>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소통과 같은 비대면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고립 및 확장편향 증가를 야기한다. 즉,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비대면 교류는 서로 결합하여 사람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공동체 의식 약화,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기>처럼 시민들이 ‘경제적 불안 상황’ 등의 문제에 봉착할 경우, 이민자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이 커지고 시민들의 정치 성향이 극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소통 공간의 확대를 추구하거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공적 미디어 플랫폼 확대, 시민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라)에는 ‘익명성’이 도시인의 무관심과 단절된 관계의 원인으로 제시됨 (가)의 다툼은 같은 공간에 3년을 살고도 서로를 모르는 익명적인 도시의 핵심적 특성 때문임 - 따라서 정답은 ‘익명성’ - ‘고립’, ‘단절’ 등의 표현은 의미는 유사하나 핵심 개념이 아니므로 감점함(2점) - ‘적대감’, ‘무심함’의 경우는 ‘익명성’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오답 처리함 - ‘익명적인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경우는 문제에서 ‘한 단어’를 찾아 쓰라고 했으므로 오답 처리함	3점
(7)	(가)는 도시인의 무관심, 익명성 등 개인주의에 해당되는 특성을 묘사함 (나)는 개인주의 확산과 나홀로 활동 증가 및 그 문제점을 설명함 따라서 <보기>의 괄호의 적절한 답은 ‘개인주의’(2점) - <보기>의 괄호는 개인주의 외는 모두 오답 처리하여 감점(2점) - 부작용으로 ‘사회적 고립’, ‘신뢰 저하’, ‘외로움’, ‘공동체 해체’ 가능(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5점
(8)	(다)는 디지털 소통이 일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공동체 연결감 제공 등)함을 설명함 이에 비해 (마)는 디지털 상호작용의 불충분성(알고 불만족스러운 연결 초래 등)에 대해 경고함 - 두 제시문의 핵심내용에 대한 비교가 명확하고, 장점과 단점이 각각 설명되어야 함 -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제시했거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감점(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2점)	5점
(9)	(다)의 사례는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황임 입원·통원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AI 튜터링 등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음 이는 <보기>의 사회권,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강화와 관련됨 - 평등권은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교육이라는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답이 될 수 있음. 다만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를 구현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에, ‘사회권 보장을 위한 평등권의 실질화’가 적절함. ‘평등권’만을 단순히 언급하는 경우 감점함(1점) -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언급한 경우 감점함(3점) - 교육방식이 추상적이거나 이에 대한 기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감점(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7점
(10)	(마)는 디지털 기반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본질적 연결 욕구에 대한 온전한 충족을 주지 못함을 설명 <보기>는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급증했음을 보여 줌 따라서 한국에서 디지털 기반 상호작용의 문제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디지털 세상(소통)에 오래 노출된 집단은 정서적 충족의 부족으로 우울·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반면 대면 관계 중심의 집단은 정서적 안정 등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 비교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예측 논리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각 항목(디지털 노출집단, 대면관계 중심 집단, 이에 대한 비교)별로 곁여 시 감점(각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점) - ‘유대감’ 또는 ‘융화성’ 등의 핵심 용어가 누락 시 감점(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11)	스마트폰·SNS 사용 증가로 사회적 고립 심화 → 공동체에 대한 신뢰 저하 가능성 ↑ 도시화(도시의 핵심 속성)로 인한 무관심과 고립의 증가 → 공동체에 대한 신뢰 저하 가능성 ↑ 이 경우 사람들은 문제 발생 시,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스마트폰·SNS 사용 증가, 도시화 모두 사회적 고립의 확대와 연관되며, 이는 알고리즘, 편파적 소통에 따른 확증 편향 등과 맞물려 정치적인 극단주의로 연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중 <보기>에서는 ‘공공장소 확충’을 제안하고 있음 - ‘도시화(도시의 핵심 메커니즘)에 따른 고립’, ‘스마트폰(디지털 소통) 사용 확대에 따른 고립’이 답안에 모두 언급되어야 함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감점(각 5점) - 예측 또는 해결방안이 제시문 또는 <보기>와의 연계가 부족한 경우 감점(각 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점

2025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1~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 (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중 인간 중심주의 관점은 자연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를 자연의 ()라고 하는데, 철학자 칸트(Kant)는 『판단력 비판』에서 목적론적 존재인 인간을 위하여 자연이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칸트는 식물계는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계를 위해 존재하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하여 존재한다면서, 마침내 다음의 질문에 다다른다. ‘지금까지 언급된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칸트는 그것들이 인간의 다양한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스스로 목적개념을 만들고 이성을 통해 자연에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나) 철학자 아르네 내스(Arne Naess)는 지구는 개별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전체적 터전(relational total field)’이며 모든 존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종의 거대한 덩어리(a kind of vast whole)’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스의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생명평등주의(biotic egalitarianism)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누구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고르게 관계를 맺으면서 공생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평등한 관계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살고, 열매를 맺으며 누구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될 수 없다. 둘째, ㉠ 전일적 존재론(holistic ontology)이다. 개별 생명체는 지구 자연이라는 하나의 생명체에 부속되며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내스는 개별 생명체를 하나의 물방울로, 지구자연을 거대한 바다로 비유하면서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주장하였다.
- (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했다. 이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파리협정의 핵심이다.
- (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대상인 390개사를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은 38.2%에 불과했고, 61.8%는 감축 투자 계획이 없거나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 중 실제로 감축 투자에 나선 곳이 10곳 중 4곳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대다수 기업들은 경기 악화,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탄소감축 투자가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A사는 2년간 1,000억원 이상을 감축설비에 투자했으나,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보았다. A사 경영진은 감축설비 대신 탄소배출권 구매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며 투자를 제안한 부서를 질책했다. 관련 전문가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장기적이고 인류사적 책임 의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 아메리카 인디언은 신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 여겨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이라 하면서 그 속에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자연 세계는 우주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아버지인 하늘 곧, 큰 정신(the Great Spirit)과 어머니인 땅(the Earth Mother)으로부터 태어났다. 따라서 자연 세계를 정신이 가

득찬 것으로 여긴다. 자연 세계의 구성원인 모든 존재는 느끼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반응한다. 바위, 물, 바람도 살아서 활동하며, 나무, 개미, 늑대, 곰도 모두 숙고한다. 이에 인간은 인간 상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자연과도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 (1)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서 언급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5점)

<보기>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 역시 생태계의 한 부분이며 모든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대지를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생명 공동체로 여겼다.

- (2) (가)의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문구를 제시하시오. (5점)
 (3) (나), (마)의 관점에서 (가)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4) (나)에 제시된 ㉠의 개념에 대한 아래 <보기>의 설명을 활용하여, (라)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대아(大我)의 실현(Self-realization)이란, 인격의 수양과 성장을 통해 자아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넘어 타인(他人)에게로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종뿐만 아니라 동물 및 모든 자연적 존재물에까지 자아를 무한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내스(Naess)는 이를 위해 동일시(identification)를 제시했는데, 동일시란 개체 자아가 다른 생명체를 자기 몸으로 간주함으로써 다른 생명체를 자기 안에 포섭하거나 혹은 자신을 다른 생명체로 확장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 (5) (가)의 입장과 (나), (마)의 입장을 참고하여, (다)와 (라)의 입장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아래 <보기>를 고려하여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방안을 서술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환경윤리학은 인간과 자연 간의 도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큰 진보를 이뤄냈으나, 한편으로는 환경윤리학이 환경정책의 형성에 어떠한 실천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간파하기 어렵다. 환경철학자들의 논쟁은 그 자체로서 흥미롭고 많은 고민을 들이긴 했지만, 그런 논쟁이 환경과학자, 활동가, 정책입안자들의 심의에 어떠한 현실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한가지 이유는 도덕적 일원론에 있다. 그동안 환경윤리학은 'A인가, B인가?'하는 양자택일식의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한쪽 입장을 선택하기를 강요해 왔다. '인간중심인가, 비인간중심인가?',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존재인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가?'라는 이항대립 도식의 논쟁에 몰두해왔고, 그 결과는 환경에 대한 실제적 영향은 멀어진 채, 제한된 이론적 논쟁에 그치게 되었다.

■ 예시 답안

(1)

생태 중심주의

(2)

도구적 가치 or 수단적 가치

(3)

내스와 아메리카 인디언은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만 보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비판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반박한다.

(4)

전일적 존재란, 지구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과 상호 동등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는 경제성 잣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자연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의 동일시적 관점을 통해 대아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5)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론적 논쟁을 넘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협약국의 탄소 순배출량을 0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도 상승이 1.5°C 이내로 제한되면, 생물다양성, 건강,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제적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다. 이들은 경기 악화, 낮은 배출권 가격 등을 이유로 감축 투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평행선과 같은 이항대립적 논쟁에 갇혀있던 환경윤리학의 한계를 넘어 여러 당사자들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동시에 논의의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질 때,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나)의 내용은 내스의 입장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점 중 ‘생태 중심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함 - ‘생태 중심주의’가 정답임(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득점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2)	(가)의 내용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함. 특히,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 부여한 목적성 내에서 자연은 목적적 가치가 아닌 도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함 - ‘도구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가 정답임(5점) - 정답 이외에 ‘활용 가치’ 등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경우 부분 점수를 인정함(3점)	5점
(3)	(나)와 (마)를 통해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의 핵심적인 논리를 도출함. 즉, 인간과 자연이 우월한 존재를 점하거나, 소유 혹은 지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우주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는 부분이 도출되어야 함 (가)에서 주장하는 인간만이 오직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인간이 자연에 대한 사용권리를 가지게 되며, 자연은 단지 도구적인 가치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도출되어야 함 - 위의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또한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시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 두 가지 내용이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되거나, 두 관점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감점함(각 3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0자 이하) 감점함(1점)	10점
(4)	(나)에서 제시된 전일적 존재론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함. 전일적 존재론이란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 자연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 관점을 통한 대아의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내용이 도출되어야 함 (라)에서 제시된 기업들은 자연과의 상호성이나 책임에 대한 관점이 배제된 채, 단기적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인 경제적 관점만을 가지고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즉,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자연과 다른 생명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이 도출되어야 함 - 위의 두 가지 관점을 근거로 평가하며, 두 관점이 모두 제시된 경우 정답으로 인정 -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감점함(각 4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0자 이하) 감점함(2점)	
(5)	(다)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도 상승 제한에 대한 협약을 통해 자연재해를 줄이고 생물과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음 (라)는 경기악화, 낮은 배출권 가격 등의 이유로 기업은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소극적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기업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함 <보기>는 환경윤리학의 한계라 볼 수 있는 도덕적 일원론의 입장과 이항대립적 논쟁을 넘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합의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함. - (다)와 (라)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각 4점) - <보기>에서 제시된 환경윤리학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도출되어야 함(5점) - 통합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이항대립적인 관점만 앞세우기보다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언급 등 포함(5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2점)	20점

문항 6~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가)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는 공간과 시간이 단절된 미래 중국 베이징 사람들의 불평등한 삶을 그려낸 단편 과학소설이다. 베이징은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48시간을 주기로 순환한다. 제1공간은 대지의 한 면을 차지하고 500만 명이 거주한다. 이들에게는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4시간이 할당된다. 이 시간이 끝나면 대지가 뒤집혀, 제1공간의 모든 건물은 접혀 지하로 들어가고 제2공간의 건물들이 펼쳐진다. 2500만 제2공간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생활하고, 제3공간이 8시간 동안 그 뒤를 잇는다. 거주민들의 공간 간 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시간 배분’으로 대부분이 쓰레기 처리 노동자인 제3공간 사람들은 48시간 중 8시간만 깨어 있고, 나머지 40시간은 최면 가스를 마시고 강제로 잠들어야 한다. 소설 속 ‘접는 도시’는 공간 전환을 통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가상의 미래에 기초하고 있다.
- (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모든 주민을 존중하여 그의 재산이나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의 공간, 서비스, 문화 등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다. 여기에는 식수, 음식, 위생, 주거, 안전,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도시의 공공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도 포함된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이다. 이렇듯 도시에 대한 권리는 각 도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주민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인권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다) 타이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곳은 타이베이이다.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려면 16년이 걸리는 곳이다. 2014년 서울의 평균이 8년이고, 유엔이 권장하는 기준이 3~5년이다. 이곳에서 집을 사기란 정말 하늘에 별 따기다. 그래서 ‘타오팡’이라는 기형적 집이 생겼다. 아파트 한 채를 서너 개로 쪼갠 불법 주거 형태다. 부엌이 없고 개인 화장실만 존재하는 그런 집이 타이베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했다. 결국 청년들은 분노했다. 홍콩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집값을 자랑하는 곳답게, 이곳에서도 ‘큐비클’이라는 비정상적 주거 형태가 존재했다. 건물의 빈 공간을 불법 개조해 정사각형 상자 같은 느낌으로 만든 곳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에는 꽤 많은 수의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년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 (라) 자본의 계층 간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생활에 대한 권리, 공간 향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등장했다.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주창한 이래, 공간향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도시공간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도시공간에 대해서는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중시되어야 하고, 피지배계층들이 ‘축제’로 표현될 수 있는 도시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은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즉, 이미 형성된 사회의 질서 속에서 ‘권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 (마) 세계 도시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세계 도시는 세계경제의 구조재편에 따른 새로운 도시화 과정과 대도시 공간구조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세계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어 초국적 기업, 금융, 거래활동, 권력 등이 상호 결합되는 세계경제의 의사결정지인 것이다. 세계 도시에서는 선진 생산자 서비스가 성장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관리직도 성장해 왔다. 예를 들어 뉴욕, 런던, 도쿄와 그 밖의 세계 도시들에서는 금융, 회계, 법률 전문가 그리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 등과 같이 초국적 엘리트들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쇠퇴하고 미숙련 및 저임금의 서비스직도 성장해 왔다.

세계 도시는 도시의 규모와 기능 및 영향력에 따라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된다. 최상위 세계 도시로는 런던, 도쿄, 뉴욕이 있으며, 하위 세계 도시로는 뮌헨, 홍콩, 서울 등이 있다. 세계 도시들의 분포는 서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자본주의 경제에서 세계화의 양상이 ()을 의미한다.

(6) (가)의 베이징 시민들은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지 (나)에서 찾아 쓰시오. (3점)

- (7) (다)의 상황을 참고하여 (라)에 서술된 ‘권리 간의 충돌’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중 어떤 권리들 사이의 충돌에 가장 가까운지 서술하시오. (12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 (8) (다)에 제시된 상황은 <보기>에 서술된 인권 중 몇 세대 인권(의 침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보기>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은 인권의 변화 과정을 1,2,3세대로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1세대 인권은 자유롭기 위해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2세대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 (9) (마)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상 적절한 문구를 쓰시오. (3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점)
- (10) (나)와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에 묘사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는 1980년대 초부터 외지에서 빈민들이 이주해 와, 무허가 주거지를 형성하며 인구가 빠르게 늘었고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많은 시민이 상하수도과 포장도로가 없는 빈민가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당시 독재 정권의 부패 속에서 어떤 공무원도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인권, 주거,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주민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이 ‘주민 참여 예산제’였다. 시민들은 매년 두 번 열리는 총회에서 대의원을 뽑고,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한다.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시 정부와 대의원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1989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 만에 식수 보급률과 하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비율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지역의 공립 학교 재학생 수는 두 배로 늘었다.

- (11) (마)의 ‘세계 도시’에서 직업과 소득, 공간, 그리고 문화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가)를 참고하여 추론하시오(단, 세계 도시에는 다른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다고 가정한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 예시 답안

(6)

도시에 대한 권리

(7)

(라)에 제시된 ‘권리 간의 충돌’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연관된 자유권과 그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와 연관된 사회권 사이의 충돌로 볼 수 있다.

(8)

(다)의 경우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을 해하지 않는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연관된 2세대 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9)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불평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10)

<보기>는 시민들이 도시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활용하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 및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사례이다. 즉,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의 시스템을 통해 도시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세계 도시에서는 선진 생산자 서비스와 이에 종사하는 전문관리직이 성장한다. 이와 함께 미숙련, 저임금의 서비스직도 성장하며, 그 결과 소득분포에 있어 최상류층과 최하 극빈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일부 지역은 최상류층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성화되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반면,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은 같은 도시 내의 열악한 지역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미숙련 서비스직의 경우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한 도시 내에서도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문화가 서로 섞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범세계 네트워크의 중심인 세계 도시에서는 직업과 소득에 따라 공간,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분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한 공간 내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집단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나)에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소개되어 있음 (가)의 베이징 시민들의 경우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공공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정답 -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부적 내용 중 일부(예: 도시의 공간, 서비스, 문화 등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 등)만을 쓴 경우는 감점함 (1점)	3점
(7)	(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이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음 (다)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유권 중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중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충돌이 정답 - 기타 다른 기본권을 언급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 (2점)	7점
(8)	(다)는 동아시아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 이는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답은 2세대 인권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임 - 1세대 인권을 언급하는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 (2점)	5점
(9)	(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세계 도시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이며, 2) 최상위 세계 도시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진국에 위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답은 “(지리적으로) 불균등(또는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괄호를 채웠을 때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5자 이하) 감점함 (2점)	5점
(10)	<보기>에 제시한 사례는 1)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도시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3)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권리들을 되찾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다)의 청년들의 경우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때 침해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보기> 상황에 대한 서술, 그리고 참여(혹은 이와 유사한 용어 등)라는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야 함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5점 감점함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 (2점)	
(11)	(가)에서의 베이징 시민들은 세 개의 분할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이들은 서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직업도 다르다는 사실(제3공간 거주민의 대다수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 노동자)을 추론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마)의 세계 도시에 적용시키면 - 직업과 소득 구조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음 - 공간적인 분리현상(segregation)도 일어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 즉 하나의 도시 안에 부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나뉘지고, 이들이 점유하는 공간도 분리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세계화의 특징인 상품,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세계 도시에 이민자들의 유입이 집중된다면 -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인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짐 - 직업과 소득, 공간, 문화의 각 측면을 모두 서술해야 함 - 각 항목별로 결여 시 5점 감점. 총 15점 감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 (3점)	20점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